

The Tasks for Christian Education as a Posthuman Practical Theology*

Shin Geun Jang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Abstract

Purpose of Study :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plore the tasks for Christian education as a posthuman practical theology, with a focus on the discussions surrounding transhumanism, posthumanism, and critical posthumanism.

Research Content and Method :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essay performs a literature-based, interdisciplinary conversation that focuses on transhumanism and posthumanism discourses. It also examines these posthuman theories from a transversal disciplinary dialogue between posthumanism and theology with a focus on technology and ecology. This essay employs roughly methodology of practical theology to propose tasks for Christian education.

Conclusions and Suggestions : In conclusion, the tasks for Christian education as a posthuman practical theology include: first, research and interpretation of posthuman contexts with a descriptive-empirical approach; second, posing biblical and theological norms for posthuman telos; third, inter-subjectivity and faith formation through the networking entanglement and becoming; fourth, establishing a theory-practice relationship based on theo-poiesis; fifth, forming the church as a symbiotic educational community; and sixth, re-configuring public paideia toward the zoe of the Kingdom of God as the common good.

Key Words

transhumanism, posthumanism, technology, ecology, practical theology, Christian educa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Grant of 2024

Received August 22, 2024 Revised September 28, 2024 Accepted September 29, 2024

Author : Shin-Geun Jang,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Theological Seminary, sgjang@puts.ac.kr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 기독교교육학의 과제*

장신근**

(장로회신학대학교)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담론에 기초하여 신학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 기독교교육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문헌 중심 연구로 이루어지며 학제적 대화를 지향한다. 먼저, 융합 학제적 관점에서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담론들을 고찰하며, 신학적 관점에서 기술과 생태에 초점을 맞추어 횡단적 대화를 시도한다. 제안에서는 실천신학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기독교 교육학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결론 및 제안 :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 기독교교육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휴먼 상황에 대한 기술-경험적 연구와 해석 작업, 둘째, 포스트휴먼 텔로스(telos)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규범 제시, 셋째, 함께 업힘의 관계망과 되어감을 통한 상호적 주체성과 신앙형성, 넷째, 테오포에시스(theopoiesis)에 기초한 이론-실천 관계 정립, 다섯째, 공생 교육 공동체로서의 교회 형성, 여섯째, 공동선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조에(zoe)를 지향하는 공적 파이데이아의 재구성 등이다.

《 주제어 》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기술, 생태,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 2024년 8월 22일 접수, 2024년 9월 28일 심사완료, 2024년 9월 29일 게재확정

* 본 논문은 2024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sjiang@puts.ac.kr

I. 들어가는 말

오늘의 기독교교육학은 트랜스휴먼·포스트휴먼 시대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포스트휴먼 담론과 신학, 특히, 실천신학으로서 기독교교육학 사이의 대화는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차원에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 교회, 사회, 세계를 지향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이에 대한 라투르, 바라드, 해러웨이, 브라이도티 등의 비판적 포스트모던 담론에 기초하여 신학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 기독교교육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상 기독교교육학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문헌 연구로 이루어지는 본 연구는 학제적 대화를 지향한다. 먼저, 융합 학제적 관점에서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기본개념과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주요 사상을 살펴보고, 신학적 관점에서 기술과 생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횡단적 대화를 시도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 기독교교육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포스트휴먼 상황에 대한 기술-경험적 연구와 해석 작업, 둘째, 포스트휴먼 텔로스(telos, 목적, 지향점)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규범 제시, 셋째, 함께 얽힘의 관계망과 되어감을 통한 상호적 주체성과 신앙형성, 넷째, 테오포에시스(theopoiesis)에 기초한 이론-실천 관계 정립, 다섯째, 공생 공동체로서의 교회 형성, 여섯째, 공동선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조에(zoe)를 지향하는 공적 파이데이아의 재구성 등이다.

II. 트랜스휴머니즘·포스트휴머니즘과 비판적 응답

포스트휴먼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이 출현한 배경과 기본적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한 성찰적 접근인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하여 논의한다.

1.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은 상호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근대 이후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가속화의 결과로 인간이 자신을 다른 존재 혹은 종으로 바

꿀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과 연관이 있다. 양자는 함께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두 용어의 기본적 개념을 살펴본다. “트랜스휴먼”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단테의 『신곡』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트랜스휴머니즘의 기본 견해는 1923년 영국의 유전학자 존 홀데인(John B. Haldane)의 책 『다이달로스, Daedalus』에서 나타난다. 그는 일찍이 진보한 과학을 인체에 적용하여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예상하였다(이혜영 외 3인, 2018, 21). “트랜스휴머니즘”이란 용어는 1940년 캐나다 철학자 윌리엄 라이트홀(William Lighthall)이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유래하였고, 1957년 줄리안 헉슬리(Julian Huxley)가 이를 자신의 논문 제목으로 차용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라이트홀은 흔히 트랜스휴머니즘의 창시자로 간주된다(이혜영 외 3인, 2018, 21).

트랜스휴머니즘의 “trans”는 “옮겨가는, 과도기적, 전환, 변환” 등과 “현재적, 미래적 진행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과도기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휴머니즘을 지칭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규정되는 인간을 초월한 인간, 즉 “자연적인 진화나 기술적·의학적 방법을 통해 지금의 인간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갖게 된 인간”인 트랜스휴먼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나 이를 지향하는 이념”을 뜻한다(홍성욱, 2019, 20). 또한 “노화를 억제하고 인간의 지적, 신체적, 심리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함으로써 인간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가능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지적, 문화적 운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정형철, 2022, 7). 즉, 트랜스휴머니즘은 첨단기술들의 융합을 통하여 여러 차원에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 조건의 향상을 지향하는 것을 긍정하는 이념과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트랜스휴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불가분의 관련 속에 있다. 근대 이후 기술의 발전을 두 가지 시대로 구분한다면, 제1 기계시대에서는 “인간이 기계를 문명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관점”이 강조된다. 반면, 제2 기계시대는 트랜스휴먼을 거쳐 포스트휴먼으로 가는 시대로 “인간과 기계가 융합하여 혼종적 존재가 되는 현상이 가시화되는 시대”이다(박일준, 2024, 58; Brynjolfsson & McAfee, 2017). 이처럼 트랜스휴머니즘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인간 조건의 한계를 넘어서는 트랜스휴먼을 지향하고 이들이 결국 호모 사피엔스와는 다른 미래적 포스트휴먼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트랜스휴먼은 포스트휴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은 NBIC(Nanotechnology,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Cognitive Science) 기술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트랜스휴먼을 거쳐 새롭게 출현하는 인간형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의 “post”는 근대적인 휴먼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다음(next to)”이라는 의미와, “이후(after)”의 의미로 근대적 휴먼과의 결별을 동시에 뜻한다. 즉, post는 “이후, 탈, 벗어남” 등과 미래 완료형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도달

하게 될 미래적이며 새로운 인간상을 지칭한다(이은경, 2024, 184; 김건우, 2019, 31). 즉,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라는 휴먼이 과도기적 트랜스휴먼을 거치면서 미래완료형인 포스트휴먼으로 변해간다는 것이다(이은경, 2024, 183-84).

포스트휴먼 사회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이러한 기술과 그 결과는 과거의 변화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금까지 따로 발전해 오던 기술들(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로봇기술 등)이 융합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다. 둘째, 엄청난 “힘의 불균형”으로, 포스트휴먼을 출현시킨 핵심기술들은 개발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자본과 권력의 집중이다. 셋째, “전환”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과 기술발전으로 나타난 변화들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이다(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 2016, 15-16).

그러면 왜 우리는 트랜스휴먼을 거쳐 포스트휴먼이 되어야 하는가? 트랜스휴먼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동기를 바로 “인간의 원초적 본성”에서 찾는다. 향상을 위한 인간의 본성은 막을 수가 없으며,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자유지상주의, 공리주의 등의 규범 윤리학에 기초하여 “인간의 무한한 호기심과 꿈, 그리고 개인이 가지는 자율적 선택의 중요성” 등을 통하여 트랜스휴먼의 정당성을 찾는다(김건우, 2019, 46). 이런 맥락에서 트랜스휴먼으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계트랜스휴머니스트협회” 홈페이지에 “트랜스휴머니스트 선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The Transhumanist Manifesto, 2020 v.4).

2.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가운데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트랜스휴머니즘이 과거의 노예, 노동, 여성해방운동보다 더 혁명적이고 과격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로널드 베일리(Ronald Bailey)는 이를 “가장 대담하고, 용감하며, 창의적이고, 인류의 열망에 가장 알맞은 운동이다”라고 평가한다(이혜영 외 3인, 2018, 16; 홍성욱, 2019, 19)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이러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이거나 혹은 유토피아적 입장 모두를 넘어선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트랜스휴머니즘이 “포스트휴먼-이즘”으로 지칭되는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포스트휴먼 미래가 긍정적, 부정적 차원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포스트휴먼 조건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을 요청한다.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 근대 휴머니즘이 초래한

서구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등을 반성하는 가운데, 특히, 인간-자연의 이분법적 구분을 극복하는 새로운 주체성을 탐색해나가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Braidotti, 2015, 63-68). 더 나아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이 움직임을 나는 인간-아님, 즉 조에(zoe) 쪽으로 ‘생명’의 개념이 확장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Braidotti, 2015, 63-68).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포스트휴먼이 처한 조건에 관심을 기울인다. 로버트 페페렐(Pobert Pepperell)은 포스트휴먼이 처한 조건의 특징을 “인간중심적 우주론의 종말, 모든 문화적·기술과학적 존재의 도구와 장치를 포함하는 과정으로서 생명의 진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인간중심 세계의 전복이 진행되는 오늘날 무엇을 묻고 어떤 가정을 할 것인가” 등으로 요약한다(정윤경, 2012, 112). 한편, 브라이도티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발달하고,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생명공학이 결합을 일으키는 근경”을 포스트휴먼 조건으로 진단하기도 한다(정윤경, 2021, 112).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에 의하면, 기술을 자기 목적으로 사용하여 트랜스휴먼을 거쳐 인간의 장애를 제거하고 포스트휴먼, 즉 슈퍼휴먼에 도달하는 이러한 유토피아적 성격을 지닌 포스트휴머니즘 이해는 사실상 근대적, 합리적 휴머니즘과 동일선상에 있다. 즉, 근대적 휴머니즘의 핵심 사상인 “자율성, 독립성, 진보” 등과 같은 개념을 강조하거나, 인간 향상을 지향함으로 “정상성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거나,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적 이해에 기초한 인간중심주의를 옹호하는 경향을 띤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포스트휴머니즘은 “모던적 재건설(reconstruction)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김동환, 2020, 108).

이와는 달리,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혹은 포스트휴먼 비판이론은 근대 계몽주의에 토대를 두는 “휴머니즘이 갖는 인간중심주의와 인간예외주의, 그것이 갖는 비인간 존재에 대한 억압과 차별, 착취 그리고 인간의 표준을 백인에 두는 인종주의가 그 외의 존재들을 타자화하는 점을 비판한다”(정윤경, 2021, 120). 특히 오늘의 생태위기를 초래한 인간중심주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인류를 여러 자연적 종(species) 가운데 하나로 인식함으로써 인간중심적 관점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휴머니즘과 차별성을 보인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에 의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a priori) 윤리적 고려 사항에서 자연을 파괴하거나 그 위에 스스로 두도록 하는 고유한 권리가 없다”(이혜영 외 3인, 2018, 121).

따라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단순히 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출현한 트랜스휴먼을 넘어선 현생 인류와 다른 종의 포스트휴먼에 대한 담론이 아니다. 즉, “인간의 지적, 신체적, 생리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정교한 기술의 창조와 발전으로 인간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세계적이고 지적인 운동”으로서의 포스트휴머니즘 이해를 넘어선다(이혜영 외 3인, 2018, 15). 이 말은 포스트휴머니즘의 토대인 기술에 대한 두 가지 양극단 입장인 기술비판주의(technophobia)와 기술지상주의(technophilia)를 모두 넘어서서 포스트휴먼 조

건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기초한 포스트휴머니즘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적 가설들에 젖어있는 인류학적 보편성(anthropological universality)을 확립하려고 한 이전 시도들을 거부한다”(이혜영 외 3인, 2018, 123). 브라이도티는 이것을 “‘인간’의 완전성을 목적으로 이성 및 세속적인 과학 합리성을 자기 규제적이고 목적론적으로 인가된 방식으로 사용해 인류를 진보시킨다는 전제,” 즉 계몽주의가 지향했던 인간중심주의의 근본 주제를 넘어서고 극복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다(Braidotti, 2015, 53). 신승환은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휴먼 담론은 근대의 모순과 양면성을 이중으로 극복하는 탈근대 철학을 지향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근대성의 이중적 모순이 재현된다고 주장한다(신승환, 2020, vii).

Ⅲ. 비판적 포스트휴먼 사유의 토대: 라투르, 바라드, 해러웨이, 브라이도티

오늘의 실천신학에 대한 포스트휴머니즘의 함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비판적 포스트휴먼 사유의 토대를 제공하는 라투르, 바라드, 해러웨이, 브라이도티 등의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행위자-관계망: 브루노 라투르

행위자-관계망(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로 표기)은 1980년대 중반에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미셸 칼롱(Michel Callon), 존 로(John Law)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는데, 존재는 개체 혹은 실체가 아닌 집단체(the collective) 또는 행위자-관계망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ANT는 사회/자연, 자연/문화, 가치/사실, 주관성/객관성 등 그동안 대립적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들 사이의 경계 넘기를 통하여 이들 사이의 위계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한다. ANT에 의하면 “세상은 복잡하고, 항상 요동치며, 서로 얽혀있고,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면서 변화하는 잡종적인 세상이다.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잡종적인 존재들에 힘입어 자연, 사회, 문화는 서로가 서로를 만들면서 동시에 구성된다”(홍성욱, 2010, 21).

ANT는 인간과--기술, 동물, 사물, 건축물, 기계, 도구, 지식 등과 같은--비인간(nonhuman) 사이의 네트워크나 이상블라주(조합) 관계에 관한 이론이다. 이것은 “과학 기술들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사물이나 대상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출현하였다(박휴용, 2019, 113). 인간과 비인간 존재는 모두 동등한 능동성을 가진 행위자(actor)이며, “사회 속의 인간 행위나 상호작용이 비인간적 존재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

다(박휴용, 2019, 113). 그러나 비인간 사물이나 기술적 존재자가 행위자라는 것은 이들이 인간과 생물처럼 의지와 목적을 지니고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와는 다르게, 이들이 “만약 어떤 측면에서 인간 행위자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거나 동일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면, 그들은 적어도 그 측면에서는 행위자”라고 보는 것이다(문규민, 2022, 55). “다른 사람이나 내 행동을 바꾸듯이 기술[예를 들어, 안전벨트, 과속방지턱]도 내 행동을 바꾸며, 나는 명령이나 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지만, 기술을 통해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Latour, 2010, 142).

ANT의 3가지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적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의 해체이다. “인간은 더 이상 자연에 대해 절대적인 주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박휴용, 2019, 114). 둘째, 기술(technology)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의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간의 일부로 간주된다(박휴용, 2019, 114). 셋째, 지구의 생태적 환경 구성과 그것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인간만이 행위와 사고의 주체라는 전통적 관념을 반대한다. 대신,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체들은 “상호의존성과 혼성화”를 통해 매우 “다중적인 관계성”을 이루며 존재한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차원을 불문하고, 인간과 기계, 물질과 비물질,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실과 가상 세계 사이 등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의존성과 혼성화를 실례로 들 수 있다(박휴용, 2019, 114). ANT는 이러한 인간 존재와 비인간 존재 사이의 관계성의 평등성을 전제한다는 의미에서 “수평적(flat) 존재론”으로 불리기도 한다(박휴용, 2019, 157).

2. 존재의 얽힘: 카렌 바라드

카렌 바라드(Karen Barad)는 이론물리학 박사학위를 지닌 신유물론 사상가이다. 신유물론은 물질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없이 “힘에 떠밀리고 법칙에 종속되는 무능한 존재”로 보았던 근대의 물질 개념을 넘어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물질의 내재적인 힘, 역량, 능력, 행위성”을 긍정하는 사상이다(문규민, 2022, 33). 그녀는 실재의 ‘얽힘’(entanglement)을 양자역학, 구체적으로, 닐스 보어(Niels Bohr)의 상보성 이론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해명한다. 바라드에 의하면, 양자역학에서 알 수 있듯이, 실재의 얽힘이란 실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행위주체들과 얽여 복잡다단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 ‘얽힘’은 무작위적이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나름 질서정연하게 구성된 얽힘이다”(박일준, 2021, 6-7). 이런 맥락에서 바라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정된 어떤 실체

같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화’(materialization) 혹은 물화(mattering, 物化) 가운데 있다”고 주장한다(박일준, 2021, 8).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존재와의 얽힘 속에 존재하며, 자신과 타자의 구별은 “행위주체(들)의 인식적 절단(cut)”을 통해 형성된다. 하지만 주체와 객체의 경계는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행위 주체의 형성이 언제나 다른 행위 주체들과의 “내적-작용”(intra-action)을 통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Barad, 2007, 333). “따라서 현상은 특정의 행위 주체적 내적-작용(agential intra-action)을 통해 그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의 경계들과 속성들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곧 의미의 창발이 된다. 즉 의미는 물질과 독립된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적 배치와 더불어 창발한다”(박일준, 2021, 8).

바라드는 자신의 철학을 “행위자는 행위함으로써 실재한다”라는 맥락에서 “행위적 실재론”이라고 주장한다. 행위적 실재론은 존재의 행위와 생성 능력을 강조한다(심귀연, 2024). 이것은 “특히 물질의 능동적인 행위성과, 물질이 의식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강조한 이론”이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성은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성되는 과정”이며, 또한 “물질은 고정된 속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한다”것이다(심귀연, 2024, 141).

3. 공생과 공-산: 도나 해러웨이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크루즈 캠퍼스에서 과학사와 여성학을 가르치는 페미니즘 사상가이며 생물학자, 과학학자, 문화비평가이다. 그녀는 생태위기로 인하여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는, 인류세(anthropocene)라고 불리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사유할 것인가를 물으면서, 근본적으로 여러 종(multispecies) 사이의 관계에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역설하는 가운데 공-산(sympoiesis)의 사유를 제안한다(Haraway, 2021). 해러웨이 사상의 핵심어인 “함께 만들기”라는 뜻을 지닌 “심포이에시스(sympoiesis)”는 원래 칠레의 인지 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인 움베르토 마투라나(Humberto Maturana)와 같은 분야의 프란시스코 바렐라(Francisco Varela)가 제안한 “오토포이에시스(autopoeisis),” 즉 “스스로 만든다”에서 유래했다. 예를 들어, 칼에 베인 상처가 며칠 후가 되면 아물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메커니즘을 바로 오토포이에시스이라고 한 것이다(최유미, 2020, 67). 그런데 해러웨이는 이것을 sympoiesis 즉, 공-산(共-産)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다. 그 이유는, 상처 난 조직의 세포들, 무기물, 미생물들이 “서로 떠받치면서, 손상된 부분을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지는 못한다. 어떤 것도 실제로 자율 생산적(autopoietic)

이거나 자기-조직적이지 않다”(Haraway, 2021, 107).

예를 들어, 곰팡이는 다른 식물들과 유익한 반려 관계를 맺기도 하고, 동시에 해로운 병원균의 역할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산은 “만물이 하나로 합일되어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누구도 모두와 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최유미, 2020, 68). 또한 공-산의 사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러웨이는 두 사람 사이의 실뜨기(string figure) 놀이를 실례로 든다(Haraway, 2021, 21-53). 여기에서 나는 패턴을 한번 만들고, 이어서 상대가 패턴을 만들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반복한다. 즉, 두 사람 모두 한번은 능동이 되고, 다음에는 수동이 되면서 그 패턴을 이어 간다(최유미, 2020, 69). 그러나 내가 능동이 된다고 해서 완전한 능동이 아니고, 반대로 상대가 수동이 된다고 해서 완전한 수동은 아니다. “실뜨기는 주기와 받기이고, 만들기과 부수기이고, 실을 줍기와 떨어뜨리기이다”(Haraway, 2021, 11).

그런데 해러웨이는 실뜨기 놀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종류의 성실”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내가 수동이 되었을 때, 상대가 실뜨기를 할 수 있도록 가만히 패턴을 내밀어주는 성실이고, 비록 결말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열려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플레이를 이어나가는 성실이고, 상대가 내민 패턴에 기계적으로 응대하지 않을 성실이다”(최유미, 2020, 70).

4. 체현된 유목적 주체: 로지 브라이도티

이탈리아 출신의 여성 포스트휴먼 철학자인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이론을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로 알려진 유전공학 시대, 즉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지닌 지질학적 세력이 된 역사적 순간에, 인간을 지시하는 기본 준거 단위를 다시 생각하도록 돕는 생성적 도구”라고 정의한다(Braidotti, 2015, 13). 그녀는 “단일한 주체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휴머니즘적 가정과 그와는 반대로 주체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과학 주도의 포스트-휴머니즘 양자를 모두 부정하면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입장에서 “포스트휴먼의 조건을 살아내는 새로운 주체, 즉 포스트휴먼 주체성(posthuman subjectivity)”을 제안한다(문규민, 2022, 187; Braidotti, 2015, 240).

그런데 이러한 작업의 출발점은 “새로운 물질성, 즉 지능적이고, 자기조직적이며, 살아있는 물질(living matter)” 개념, 즉 “생기론적 유물론”이다(문규민, 2022, 187). 브라이도티에 의하면 “생기 있고, 지능적이며, 스마트하고, 자기조직적인 물질”(문규민, 2022, 188) 개념을 주장하는 생기론적 유물론은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포스트휴먼 감수성의 핵심”이다(Braidotti, 2015, 76). 이런 맥락에서 포스트휴먼적 주체는 “유물론적이고 생기적이며, 체현되고 환경에 속해 있다”(Braidotti, 2015, 240).

브라이도티는 비이분법적인 자연-문화 연속체의 관점에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물질은 항상 문화적 전처리(cultural treatment)를 거친 물질이고, 문화적으로 구성된 물질은 언제나 자연적 선결조건(natural precondition)위에서 구성된 물질”이라고 주장한다(문규민, 2022, 193). 또한 인간의 육체를 비롯하여 모든 물질이 지능이 있고 자기 조직적이라는 “탈-인간 중심주의적 일원론적 유물론에 기반을 둔 탈-인간중심주의”를 제안한다(Braidotti, 2015, 81. 역자 후기, 273). 그리고 브라이도티는 “인간의 개체적 생명을 넘어선 생기론적 생성력인 대문자 ‘생명(Life)’에 기반을 둔 조에(zoe) 평등주의와 관계적이고 횡단적이며 체현되고 환경 속에 속해 있는 포스트휴먼 주체성”을 모색한다(Braidotti, 2015, 역자후기, 273; Braidotti, 2022, 247-48).

생명 자체의 역동적이고 자기조직적 구조인 조에는 생성적 생기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종과 범주와 영역을 가로질러 재연결하는 횡단적 힘이다. 나에게서는 조에중심의 평등주의가 탈-인간중심적 선회의 핵심이다(Braidotti, 2015, 82).

이런 맥락에서 브라이도티는 보편적 주체를 거부하며 “유목적 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주체는 이제 더 이상 확고하게 자신의 위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리하여 나-너, 주체-객체 간의 경계가 흐려진다. 유목적 주체는 보편적인 본질을 지닌 어떤 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계를 횡단하는 변화하는 존재이다(심귀연, 2024, 69). 유목적 주체는 동물-되기로서의 포스트휴먼, 즉 “비인간 동물들과 평등하게 관계 맺는 주체”이고, 지구-되기로서의 포스트휴먼, 즉 “행성적 관점에서 재고된 주체, 지질학적으로 확장된 인간”이며, 기계-되기로서의 포스트휴먼, 즉 “다수의 타자와 중요한 유대를 맺고 기술로 매개된 지구행성 환경과 융합하는 주체”이다(문규민, 2022, 196-206. Braidotti, 2015, 90-125). 이러한 조에-중심 평등주의에 기초한 “되기”는 윤리적 함의를 지닌다. 즉, 되기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공-구성, 횡단성, 공동결정,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통해 존재론적 차원의 평등을 확립한다”(문규민, 2022, 207). 그러나 인간-비인간 사이의 존재론적 평등은 책임의 평준화를 뜻하지 않으며, 오늘의 인류세를 초래한 인간에게는 특별히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떠맡는 주체성”이 요청된다(문규민, 2022, 207).

브라이도티에 의하면 포스트휴먼 사유는 요약하자면 “지구행성적 다양성의 힘을 신뢰하는 사유”이며, “지정확적이고 생태지혜적이며 자랑스러운 조에 중심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할 방법이다”(Braidotti, 2022, 246, 247). 이런 맥락에서 “포스트휴먼-되기는 공유된 세계, 영토적 공간에 대한 우리의 애착과 연계 의식을 재정의하는 과정이다”(Braidotti, 2022, 246).

IV. 포스트휴먼 담론과 신학의 대화

포스트휴먼 담론과 신학의 대화는 아직 신학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신학과 생태신학을 중심으로 포스트휴먼 담론과 신학 사이에서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1. 기술신학

기독교 윤리학자인 김은혜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에 비하여 기술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면서 첨단기술 시대에 “호모 파베르(Homo Faber)로서의 인간과 그 인간이 사용하는 기술 개념, 변화된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신학적 성찰과 응답을 시도한다(김은혜, 2024, 12). 다차원적 디지털 세계(Digital World)의 현상 가운데 존재하는 오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활세계에서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급진적 기술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응답”해야 할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김은혜, 2024, 15). 근현대 기독교의 기술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술은 인간성과 대립되고 분리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기술 환경이 급속하고,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기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구별되는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은혜는 오늘과 같은 제2 기술시대의 신학적 과제를 “기술과의 연관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면서도 탈인간화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본다(김은혜, 2024, 19).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기술 철학자 질베르 시몽돈(Gilbert Simondon, 1924-1988)의 기술철학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시몽돈에 의하면 기술은 “결여된 인간을 강화하는 단순한 보철물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매체로서 인간 사회의 새로운 구조화와 존재론적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김은혜, 2024, 23-24). 그는 “기술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매개하는 진정한 소통의 역량”이라고 강조한다(김은혜, 2024, 25). 인간과 기술 사이의 상호협력적 관계성을 강조한 시몽돈은 “인간과 기술적 대상들 사이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 공진화의 적합한 관계 방식”을 정립하려고 노력하였다(김은혜, 2024, 26). 인간과 기술 사이의 상호협력적 공진화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기술은 인간에게 위협적인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휴머니즘에 대한 기회”도 제공한다(김은혜, 2024, 26).

인간 중심주의적이며 도구주의적 기술이해에 반대하는 시몽돈의 기술철학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신학적 전통을 복원하며, 기술 개체는 더 이상 인간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독점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물질 환경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자 역

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김은혜, 2024, 13). 또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상호협력적 공진화의 관계로 바라보는 기술신학”의 모색에 큰 통찰력을 제공한다(김은혜, 2024, 13).

이어서 김은혜는 기술신학의 토대로서 “만물신학”(theology of all things)을 제안한다. 만물신학은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만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나타나는 것처럼, “기독교가 인간중심이 아니며 인간만이 세계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아님을 깨닫게 하며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주체들임을 말한다”(김은혜, 2024, 39). 만물신학은 창조론과 구원론의 적극적 통합을 강조한다. 이를 통하여 인간중심주의의 결과인 “개인 구원론의 반생태적 결과들을 반성하고 피조세계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서사에 중요한 매개자임을 긍정”한다(김은혜, 2024, 12). 만물신학에 의하면 자연은 “이미 인간의 기술로 매개된 것이며, 기술은 생태와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이런 점에서 인간과 비인간 타자들은 아상블라주(Assemblage)로서 ‘공동의 세계’로 이해된다”(김은혜, 2024, 12).

기술신학은 이제 ‘유기체와 생명체’를 넘어 비유기체적 존재들과 만물의 얽힘 속에서 공생하며 공동 참여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 만물신학적 바탕위에 기술대상들의 고유한 존재론적 가치가 드러나게 한다(김은혜, 2024, 40).

그런데 인간과 기술의 공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중재, 조정,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인간은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2. 생태신학

이성호는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신학”에서 탈식민주의 담론과 포스트휴머니즘의 새로운 실재론에 기초한 생태신학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태정의”와 “사회정의” 사이의 분가분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탈식민적 생태비평”과 “객체지향 존재론”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먼저, 탈식민적 생태비평은 “인간과 비인간적인 타자 사이의 지배와 피지배적인 관계의 비정상성과 이것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며 다른 방식의 관계 맺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분야”이다(이성호, 2024, 143; 장신근, 2024, 417-25). 탈식민적 생태비평의 주요 연구방향은 첫째, 자원을 무분별하게 착취해온 (환경적)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둘째, “기존의 생명 및 환경과 관련된 지식체계, 정책, 문서(문학 작품 포함) 등”에 대한 비판적 읽기와 그 속에 숨겨진 제국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코드에 대한 폭로, 셋째, 생태학 저변에 깔려있는 “서구 중심주의와 미국중심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것이다(이성호, 2024, 144-46).

이러한 맥락에서 탈식민적 생태비평은 “제국주의 역사가 비인간적인 존재들—동물, 식물, 자연환경 등을 포함하여—에게 가해진 것들에 주목하고 그동안 숨겨지거나 소외된... 식민의 역사에 대한 다시 쓰기와 재평가를 시도하는” 분야이다(이성호, 2024, 146-47). 탈식민적 생태비평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의 생태 위기는 단순히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약자 계층과 가난한 국가들이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인간 사회의 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정의와 생태정의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다(이성호, 2024, 147).

다음으로, 이성호는 기후 위기시대를 위한 포스트휴먼 생태신학을 위하여 신학과 “객체지향 존재론”과 “초객체 이론” 사이의 대화를 시도한다. 객체지향 존재론은 그레이엄 하먼(Graham Harman), 이안 그랜트(Iain Grant), 레이 브라시에(Ray Brassier)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실재론(realism) 혹은 신물질주의 운동에 기초하는데, 과거의 해석과는 다르게 물질 혹은 사물을 “행위성과 능동성을 지닌 행위자”로 간주한다(이성호, 2024, 150-51). 하먼은 객체지향 존재론은 “실재를 ‘객체’의 형상으로 구상하는 형이상학으로 객체를 ‘인식주체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자율성’을 지닌 존재로 규정한다”(이성호, 2024, 151-52). 객체지향 존재론은 앞에서 살펴본 라투르의 행위자-관계망 이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만 아니라 모든 것이 행위자이며, 모든 관계는 호혜적이며 대칭적이며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이성호, 2024, 153).

티모시 모턴(Timothy Morton)의 초객체 이론은 “개별 객체의 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인간들과 비교하여 시간과 공간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사물들(things)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이성호, 2024, 155). 초객체는 자연계의 생태권, 태양계에서부터 인간 사회의 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 자본주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모턴에 의하면 초객체는 “끈적끈적”하며,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지 않고(non local),” “깊은 차원에서 다른 시간성에 참여하며,” “고-차원적 위상공간”을 차지하고, “상호객체적으로” 자신들의 작용을 보여준다(이성호, 2024, 156). 지구 온난화에서 이러한 초객체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즉, “어디에나 존재하고 나에게 늘 붙어있는 존재,”이며 개인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긴 시간의 흐름과 “지구 내의 다양한 객체들과의 복잡 다단한 상호작용”이다(이성호, 2024, 157). 이런 이유로 온난화의 위협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모턴은 지구 온난화에 저항하는 길은 먼저 우리 인간 존재가 이미 비인간 객체들과 얽혀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비인간들과의 연대를 동력으로 삼아 지구 온난화와 그것의 동력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흔들어’(rocking) 아래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Morton, 276, 293; 이성호, 2024, 159-60).

탈식민 생태비평은 생태 위기의 원인을 “제국주의 역사 및 신식민주의 안에서 구체화”하

고,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의 “수탈과 착취 대상을 비인간적 존재들”로 확대한다. 또한 문학 분야 안에서 서구중심적, 낭만적 생태비평을 극복하는데 공헌한다. 그러나, 탈식민 생태비평의 단점은 1세계의 자연과 3세계의 자연을 구분하는 것과, 피식민 국가의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부재이다(이성호, 2024, 161-62).

객체지향 존재론과 초객체 이론은 탈식민 생태비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이성호, 162-64). 첫째, 탈-인간중심적 철학으로서 객체지향 존재론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패러다임을 해체할 수 있는 사상이다. 둘째, 객체는 “수동적인 기계적 사물”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비인간 존재가 제국주의적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에게 수동적으로 희생만 당한다는 탈식민적 생태 비평의 자연관이 지닌 한계를 극복한다.” 셋째, 초객체 개념은 온난화에 대한 사람들의 소극적 혹은 부정적 반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객체지향 존재론과 초객체 이론은 인간과 비인간 객체 사이의 상호연관성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추상적 선언에 그치고 구체적인 사례와 방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이성호, 2024, 164).

이성호는 결론적으로 탈식민적 생태비평과 객체지향 존재론과 초객체 이론에 기초하여 생태정의와 사회정의 사이의 조화에 대하여 어떻게 신학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지를 물으면서 이에 대한 답을 구원론의 순서에 따라서 제안한다. 첫째,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 문명에 대한 깨달음”이다(죄인식)(이성호, 2024, 165-66). 둘째,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상호자백과 반성을 통한 “생태적 죄에 대한 회개”이다(회개)(이성호, 2024, 167-68). 셋째, “진리의 세계관으로 내면을 채우는 성화의 길이다(성화).”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구상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공동체 세우기)(이성호, 2024, 170).

V.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 기독교교육학의 과제

이제 앞에서 다룬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휴먼 담론 등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이에 대한 신학적 응답(기술신학과 생태신학)에 기초하여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 기독교교육학의 과제를 제안한다.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 기독교교육학은 첨단기술발달, 기후위기, 인류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신제국주의 등의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여 성서적·신학적 자원과 비판적 포스트휴먼 담론 사이의 창조적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실천(theo-praxis, or divine praxis)에 참여하도록 가르침과 배움의 공간을 창조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러한 실천신학으로서 기독교교육학의 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실천신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경험적 과제(descriptive and empirical task), 해석적 과제(interpretive task), 규범적 과제(normative

task), 실용적 과제(pragmatic task) 등 실천신학의 4가지 중심과제를 원용한다(Osmer, 2012).

1. 포스트휴먼 상황에 대한 기술-경험적 연구와 해석작업

실천신학의 기술-경험적 과제는 기독교적 컨텍스트와 실천에 대한 기술-경험적 연구조사로 실천의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또한 해석적 과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답하면서 기술-경험적 차원의 과제를 해석하는 단계이다(Osmer, 2012, 61-129, 133-98).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 기독교교육학은 먼저 오늘의 기독교교육학이 직면한 포스트휴먼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비판적 해석의 과제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NBIC로 대표되는 첨단기술발달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 상황에 대한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차원의 이해와 해석을 수행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시도한다.

- 첨단기술의 발달: 오늘날 첨단기술 발달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가? 우리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첨단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인간 향상과 관련된 첨단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가?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삶과 더 나아가 비인간 존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인간과 기술이 관계 맺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첨단기술의 혜택을 받고 누가 여기에서 제외되는가? 첨단기술 발달의 궁극적 지향점은 무엇인가?

- 기후 위기: 오늘의 기후 위기 상황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기후 위기의 중요한 쟁점들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기후 위기와 기술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기후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인가? 생태 정의와 사회 정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교육학은 먼저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첨단기술 발달과 기후 위기 상황에 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기술적-경험적 차원과 해석적 차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어떠한 관점과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는가? 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기술(記述)은 해석에, 반대로 해석은 기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description)과 해석에 있어서 테크노포비아의 입장인가, 아니면 테크노필리아의 입장인가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의 장점, 유익함, 한계성, 위험성 등을 균

형 있게 고려하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시각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2. 포스트휴먼 텔로스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규범 제시

실천신학의 규범적 과제는 “어떤 일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공동체의 삶과 세상의 사건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답을 시도하는 것이다(Osmer, 2012, 32). 규범적 과제는 3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 특정한 사건, 정황, 상황의 해석을 위해 신학적 개념을 활용하는 “신학적 성찰”이며, 둘째, “그 상황에 적절한 행동 전략을 지도할 수 있는 윤리적인 원칙, 지침, 규칙을 찾아내는 과제”이며, 셋째, “기독교인의 삶의 패턴을 형성하는 데 규범적 안내가 되어줄 기독교 전통의 과거와 현재의 훌륭한 실천을 살펴보는 것”이다(Osmer, 2012, 215-44).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 지향하는 탈인간주의, 유목적 주체성, 객체지향성, 횡단성, 융합성, 네트워크성, 생명중심성, 공-산, 얽힘, 되기 등과 같은 텔로스와 하나님의 형상, 성육신, 삼위일체적 페리코레스시스(상호내주), 우주적 그리스도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등과 같은 성서적·신학적 텔로스 사이의 횡단적 대화를 시도한다. 횡단적 대화란 기독교적 규범과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 지향하는 텔로스 혹은 지향점 사이에 동의가 되는 부분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남겨두고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상호비판적, 공감적 대화를 통하여 상호적 변화를 지향한다.

특히, 양자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호모 데우스를 꿈꾸며 인간 조건의 지속적 확장을 추구하는 “생명무한확장론(Extropianism)”을 비롯하여 “테크노가이아니즘(Technogaianism),” “불멸주의(Immortalism),” “포스트젠더리즘(Postgenderism)” 등과 같은 트랜스휴머니즘이 지닌 유사 종교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한계 없는 인간 향상 비전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한다(정형철, 2022, 37-38). 정형철에 의하면, 오늘의 포스트휴먼 상황에서 종교는 트랜스휴먼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근원적, 초월적 질문을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정형철, 2022, 37-38). 첫째, “기술과 비인간화의 문제,” 둘째, “죽음의 문제,” 셋째, “미래의 테크놀로지로 인한 인간 멸절의 위험,” 넷째, “포스트휴먼이 되지 못한 평범한 인간들의 생존문제” 등이다.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과의 비판적 상관관계 대화를 통하여 이러한 근원적, 초월적 질문에 대하여 성찰하고 응답하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3. 함께 얽힘의 관계망과 되어감을 통한 상호적 주체성과 신앙형성

1980년대 후반부터 정치, 경제, 문화적 영역에서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 현상은 기독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컨텍스트였다. 이에 상응하여 기독교교육학 분야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다원주의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관계성, 개방성, 평등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후인습적 자아 정체성(혹은 주체성)과 신앙형성을 위한 교육이 많이 강조되었다(Osmer and Schweitzer, 2003). 또한 관계성, 개방성, 평등성에 기초하여 세계화가 가져온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생태 파괴의 극복을 위한 비판적 논의도 기독교교육학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교육 주체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인간 존재에 한정되었고, 비인간 존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시대적 한계도 노출하였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은 교육의 목적, 내용, 과정, 현장, 방법 등에 있어서 인간 중심적 관점의 확장을 시도한다. 즉, 인간 존재들 사이, 인간과 비인간 존재 사이, 그리고 비인간 존재들 사이의 함께 얽힘의 관계망을 모두 고려하는 상호적 주체성과 신앙형성 교육을 추구한다.

함께 얽힘의 관계망을 통한 상호적 주체성과 신앙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 모두가 상호적으로 얽혀있으며, 관계성 속에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라투르가 주장한 것처럼 존재 개념을 ‘개체’가 아니라 ‘집단체’(the collective)로 보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주체성은 이제 개별적, 개체적 주체성이 아니라 “사회적 주체성”으로 인식된다.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은 하나님의 교육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의 주체성(정체성)과 신앙은 인간 존재와 비인간 존재 모두의 얽힘의 관계망 속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얽힘의 관계망에 기초한 주체성과 신앙 형성은 객체에 대한 응답-능력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우리는 책임감(responsibility)이 아닌 응답-능력(response-ability)의 문제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자연의 응답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만 책임 있는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박일준, 2021, 9). 객체에 대한 응답 능력을 브라이도티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되기”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브라이도티가 제안한 동물되기, 지구되기, 기계되기는 우리가 비인간 존재와 공-구성, 횡단성, 공동결정, 상호의존, 상호 얽힘 등의 관계를 수립하는 역량이며,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들의 공감 반경을 비인간 존재로 확장해 나가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 기독교교육학의 중요한 과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하에, 특히 피조물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기초하여, 인류세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인간, 그리고 더 나아가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되기를 실현해 나가는 상호적 주체성과 신앙을 양육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되기의 실현을 통한 상호적 주체성과 신앙 양육

은 동시에 우리 인간이 초래한 생태위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4. 테오포이에시스에 기초한 이론-실천 관계 정립

실천신학의 실용적 과제는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의 차원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실천신학이 다른 신학 분야와 구별되는 과제로 어떻게 규범적 차원을 오늘의 기독교 실천의 현장에서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실천을 이끌어 가는 개방된 가이드라인, 개방된 전략, 성찰적 방법 등을 뜻한다. 여기에서 어떻게(how to)라는 질문은 응용기술(technique)이라기보다는 구체적 상황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여 이에 적합한 실천을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 경험적이며, 해석적이며, 예술적인 특성을 가진다(Osmer, 2012, 263-322).

최근 실천신학 분야에서는 근대 실천신학 이후 나타난 실천의 개인주의화, 사사화, 교직화 등으로 인한 실천개념의 협소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락시스(theopraxis)”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프락시스라는 개념을 통하여 개인뿐 아니라 교회 밖 사회와 공적영역을 포괄하는 실천개념을 지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인간, 인간-인간관계 외에 비인간 존재를 포괄하는 실천개념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은 주체성과 신앙형성의 과제와 마찬가지로 실천 이해에 있어서도 인간중심주의와 인간 예외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들 사이뿐 아니라, 동물과 기계를 비롯한 비인간 존재까지 포괄하는 공-산적 실천개념을 정립해 나간다. 즉, “나의 행위능력(agency)이란 나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술한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관계적 효과”라는 라투르의 말처럼, 하나님-인간-비인간 존재의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감이라는 실천개념을 추구한다(Latour, 2010, 46).

성자 하나님의 프락시스로서의 성육신을 공-산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더불어-함께-만들어-나가는 것” 즉, theopoiesis 라고 할 수 있다(Keller, 2022, 231). 성육신은 하나님-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까지 포함하는 만물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캐서린 켈러(Catherine Keller)는 성육신을 “만물 중에 만물되기”(becoming all in all), 혹은 “사이의 육화”(intercarnation)라고 명한다(Keller, 2022, 231).

최근 실천신학 분야에서는 하나님의 실천개념과 더불어 “프로네시스”(pronesis)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왔다. 원래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하는 이 용어는 “성찰적 지혜” 혹은 “실천적 지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론과 실천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전

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늘의 포스트휴먼 상황에서는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포스트휴먼 지식이 지닌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이다. 첫째, 통섭, 아상블라주, 혼성성 등의 성격이 종합된 “융합성”이다. 둘째, 정보화, 사이보그화, 시스템화의 성격이 종합된 “디지털화”이다. 셋째, 연결성, 확장성, 다기능성, 복원력 등의 성격이 종합된 “네트워크성”이다. 넷째, 복잡성, 자기 조직성, 직관성 등의 성격이 종합된 “생명 중심성”이다(박휴용, 2019, 140-154). 이런 맥락에서,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은 융합성, 디지털화, 네트워크성, 생명 중심성 등의 특징을 지닌 포스트휴먼 지식과의 횡단적 대화를 통하여 실천 개념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심포이에-프로네시스(Sympoie-phronesis, 공-산적 실천 지혜)”라는 용어를 제안해 본다. 즉, 이론-실천의 관계에서 융합성, 디지털화, 네트워크성, 생명 중심성 등의 시대적 특성을 창조적으로 고려하는 심포이에-프로네시스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 공생 교육 공동체로서의 교회 형성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은 교회를 공생 교육 공동체로 형성해 나가는 과제를 수행한다. 공생 교육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최근 예장통합의 총회 주제처럼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조예로서의 생명을 지향하고, 함께 되어 가며,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교육현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 현장과 관련된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의 과제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1) 포스트휴먼 상황과 관련된 위기와 도전에 대한 이해와 해석, 2) 포스트휴먼 텔로스(τέλος)와 성서적·신학적 규범 사이의 대화, 3) 함께 엮힘의 관계망을 통한 상호적 주체성과 신앙형성, 그리고 4) 테오포이에시스에 기초한 신앙 실천역량의 양육 등이다.

이상의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공생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회 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포스트휴먼 지식의 특징인 융합성, 디지털화, 네트워크성, 생명중심성 등을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 이 가운데 특히,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성과 관련하여 디지털 교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이민자와 디지털 원주민이 공존하는 오늘의 다차원적 디지털 세계의 상황에서 공생 교육 공동체인 교회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동시에 온라인상의 디지털 교회를 지향한다. 디지털 네트워크에 기초한 디지털 교회는 공교회(public church)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유를 제공한다. 디지털 매체의 네트워크가 지닌 모든 사람을 향한 개방성과 확장성은 공교회와 하나님 나라(누룩 비유)의 메타포가 된다(양금희, 2021, 56-58).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은 디지털 교회의 이러한 개방성과 확장성을 토대로, 또한 오프라인 교회와의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위에서 제시한 교육적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지

원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네트워크와 더불어,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은 공생 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단계와 세대 통합의 관점을 고려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글로벌 시민 사회(공적 영역)와 더 나아가 비인간 존재 등과의 네트워크까지 포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공동선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조예를 지향하는 공적 파이데이아의 재구성

하나님 나라의 조예는 “인간의 개체적 생명을 넘어선 생기론적 생성력인 대문자 생명(Life)”에 기반을 둔 조예(Braidotti)와 몰트만의 만유재신론적 비전 혹은 위에서 살펴본 만물신학 사이의 대화에 기초하여 생명의 개념을 유기체와 생명체를 넘어 비유기체적 존재들과 만물까지 포괄한 확장된 생명 개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휴먼 public 개념은 공공 대중(인간)뿐 아니라 행성 공중(planetary public)이라는 관점에서 비인간 존재의 중요성도 고려한다. 그리고 포스트휴먼 공동선도 역시 행성 공중을 전제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제 공동선은 인간 존재만을 위한 선이 아니라, “지구 행성의 만물을 위한 공동선”(planetary common good for all things)으로 이해된다(참고: 주연수, 2023, 48).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은 공적 이슈에 참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조예로서의 생명 개념에 기초하여 행성 공중과의 연대 가운데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파이데이아의 재구성에 참여한다.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적 파이데이아가 실천되는 공교육 현장에서 생태 정의와 사회 정의가 통전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즉, 공적영역의 정의 담론에 참여할 때 생태 정의와 사회 정의가 분리되지 않고 통전적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민중과 “비인간 민중” 또는 인간 하위주체(subaltern)와 비인간 하위주체(혹은 생태적 하위주체)가 겪는 불의는 사회적 정의와 동시에 생태적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생태 위기와 더불어 공론장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첨단기술과 관련된 공동선 담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공동선의 관점에서 첨단기술과 비인간화, 첨단 기술권력의 남용, 끝없는 인간 향상 욕망, 첨단기술의 파괴적 결과, 첨단기술 혜택의 양극화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원한다.

VI. 나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기술과 생태에 초점을 맞추어 탈 인간주의 혹은 탈 인간예외주의를 지향하는 비판적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인간 존재와 비인간 존재 사이의 공-산적이고, 상호 얽힘의 사유와 성서적·신학적 비전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 포스트모더니즘은 오늘의 포스트모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해 주었지만 한계점 또한 노출하였다. 그중 하나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의 부족, 혹은 대안의 모호함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오늘의 위기가 너무나 복합적이고 중층적이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실천신학의 입장에서는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본 연구도 그러한 점에서 유사한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한계성이 바로 미래의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 실천신학의 과제라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이러한 과제를 어떠한 대상과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제안이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실천신학 분야에서 특히 기독교교육학이 이러한 대화와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더욱 창조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참 고 문 헌

- 강우성 외 3인 (2021). **포스트휴머니즘의 쟁점들**. 서울: 갈무리.
- [Kang, W. S. et al. (2021). *Issues of posthumanism*. Seoul: Galmuri.]
- 김건우 (2019). 1장: 포스트휴먼의 개념적, 규범학적 의의.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 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 파주: 아카넷, 29-66.
- [Kim, K. W. (2019). Conceptual and normative significance of posthum. Korea Post-Human Research Institute & Korean Post-Human Society. Eds. (2019). *Human in the posthuman era*. Paju: Acanet, 29-66.]
- 김동환 (2020). 포스트휴머니즘에 내재된 포스트모던 특성에 관한 신학적 비평. **대학과 선교**, 45, 91-119.
- [Kim, D. H. (2020). A theological criticism on postmodern characteristics embedded in posthumanism. *College and Missionary Work*, 45, 91-119.]
- 김은혜 (2020). 포스트 바디시대에 대한 신학적 응답: 성육신적 몸(body)과 신체(flesh)의 개념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8, 759-84.
- [Kim, E. H. (2020). Theological reflection on an age of postbody: Focusing on the concept of body and flesh. **Theology and Practice**, 38, 759-84.]
- 김은혜 (2024). 첨단기술 시대, 신학의 과제와 전망. 김은혜 외 8인. **기술신학**. 서울: 동연, 11-46.
- [Kim, E. H. (2024). Age of advanced technology, tasks and prospect. Kim, E. H. et al. *Theology of technology*. Seoul: Dongyeon, 11-46.]
- 문규민 (2022). **신유물론 입문: 새로운 물질성과 횡단성**. 성남: 두 번째 테제.
- [Moon, K. M. (2022). *Introduction to new materialism: New materiality and transversality*. Sungnam: Second These.]
- 박일준 (2018). **인공지능 시대, 인간을 묻다**. 서울: 동연.
- [Park, I. J. (2018).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king on humans*. Seoul: Dongyeon.]
- 박일준 (2021).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론: 동아시아적 여물의 관점에서 얽힘과 네트워크적 연장 읽기. **기독교교육정보**, 71, 1-37.
- [Park, I. J. (2021). A theory of being-human in the posthuman age: Reading entanglement and actor-network from a east-Asian perspective of staying with things. *Journal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71, 1-37.]
- 박일준 (2024). 기술에 대한 철학적 비판. 김은혜 외 8인 (2024). **기술신학**. 서울: 동연, 47-90.
- [Park, I. J. A philosophical critique of technology. Kim, E. H. et al. (2024). *Theology of technology*. Seoul: Dongyeon, 47-90.]
- 박휴용 (2019). **포스트휴머니즘과 교육의 미래**. 전주: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Park, H. Y. (2019). *The future of posthumanism and education*. Jeonju: Chonbuk University Press.]
- 손화철 (2020). **호모파베르의 미래**. 파주: 아카넷.
- [Son, H. C. (2020). *The Futire of homo faber*. Paju: Acanet.]
- 신승환 (2020). **포스트휴머니즘의 유래와 도래**.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Shin, S. H. (2020). *Origin and Coming of Posthumanism*. Seoul: Seokang University Press.]
- 심귀연 (2024).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서울: 도서출판, 길.
- [Shim, K. Y. (2024). *This book is new materialism*. Seoul: Gil Press.]
- 양금희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택트(ontact)”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8, 41-76.
- [Yang K. H. (2021). A Study on “on-tact”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corona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8, 41-76.]

- 우정길 외 4인 (2021). **포스트휴머니즘과 교육학**. 서울: 학지사.
- [Woo, J. G. et al. (2021). *Posthumanism and education*. Seoul: Hakjisa.]
- 이경란 (2017).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Lee, K. L. (2017). *Rosi Braidotti, posthuman*. Seoul: Communication Books.]
- 이은경 (2024). 기술시대 포스트휴먼화가 종교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기독교교육에서의 시사점. 김은혜 외 8인. **기술신학**. 서울: 동연, 177-209.
- [Lee, E. K. (2024). The impact of posthumanization on religion and education in the age of technology and its implic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Kim, E. H. et al. *Theology of technology*. Seoul: Dongyeon, 177-209.]
- 이혜영 외 3인 (2018).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서울: 한국학술정보.
- [Lee, H. Y. et al. (2018). *Transhumanism and posthumanism*. Seoul: Korean Academic Information.]
- 장신근 (2024). 포스트식민주의 실천신학과 오늘의 기독교교육학의 과제. **장신논단**. 63, 413-51.
- [Jang, S. G. (2024). Postcolonial practical theology and the tasks of Christian education today.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63, 413-51.]
- 전현식, 김은혜 외 (2022). **생태 사물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Jeon, H. S. & Kim, E. H. et al. (2022). *Eco-Theology & Things Ecology*.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정윤경 (2021). 교육학의 포스트휴머니즘 수용과 포스트휴먼 감응교육 탐색. 우정길 외 4인. **포스트휴머니즘과 교육학**. 서울: 학지사, 107-56.
- [Chung, Y. K. (2021). Educational reception of posthumanism and exploration of posthuman affect education. Woo, J. G. et al. *Posthumanism and education*. Seoul: Hakjisa, 107-56.]
- 정형철 (2022). **종교와 트랜스휴머니즘**. 서울: 한국학술정보.
- [Jeong, H. C. (2022). *Religion and transhumanism*. Seoul: Korean Academic Information.]
- 주연수 (2023). 코로나 세대, 공적 기독교교육의 방향성 연구: 언캐니와 성육신적 연대. **기독교교육논총**. 74, 33-55.
- [Joo, Y. S. (2023). Public practice and Christian education for Covid-generation: Uncanny and incarnational solidar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4, 33-55.]
- 최유미 (2020).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서울: b.
- [Choi, Y. M. (2020). *Haraway, Thinking of Sympoiesis*. Seoul: b.]
-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 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 (2019). 서문.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 과주: 아카넷, 13-26.
- [Korea Post-Human Research Institute & Korean Post-Human Society. Eds. (2019). Introduction. *Human in the posthuman era*. Paju: Acanet, 13-26.]
- 홍성욱 (2010). 제1장: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브르노 라투르 외.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도서출판 이음, 15-35.
- [Hong, S. U. (2010). Ch.1: Understanding ANT in terms of 7 thesis. *Human-things-alliance: Actor-network theory and techno-science*. Seoul: Eum Press, 15-35.]
- 홍성욱 (2019).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서울: 휴머니스트.
- [Hong, S. U. (2019). *A posthuman odyssey*. Seoul: Humanist.]
- Barad, K.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Bennett, J. (2010).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Bennett, J. (2020). **생동하는 물질**. 문성재 역. 서울: 현실문화. (원저 2010 출판)
 [Bennett, J. (2020).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Translator: Moon, S. J. Seoul: Hyunsil Munwha.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0)]
- Braidotti, R. (2022). **포스트휴먼 지식**. 김재희, 송은주 역. 파주: 아카넷. (원저 2019 출판)
 [Braidotti, R. (2022). *Posthuman knowledge*. Translator: Kim, J. H. & Song, E. J. Paju: Acanet.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9)]
- Braidotti, R. (2015).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파주: 아카넷. (원저 2013 출판)
 [Braidotti, R. (2015). *The Posthuman*. Translator: Lee, K. L. Paju: Acanet.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3)]
- Brynjolfsson, E. & McAfee, A. (2017). **제2의 기계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이한음 역. 서울: 청림출판. (원저 2016 출판)
 [Brynjolfsson, E. & McAfee, A. (2017). *An age of second machin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Translator: Lee, H. E. Seoul: Cheonglim Publishing.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6)]
- Campbell, H. A. (2016). *Networke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Haraway, D. J. (2021).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역. 서울: 마농지. (원저 2016 출판)
 [Haraway, D. J. (2021).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Translator: Choi, Y. M. Seoul: Manongji.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6)]
- Keller, C. (2022). **지구정치신학**. 박일준 역. 논산: 대장간. (원저 2018 출판)
 [Keller, C. (2022). *Political theology of the earth: Our planetary emergency and the struggle for a new public*. Translator: Park, I. J. Nonsan: Daejanggan.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8)]
- Latour, B.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lator: Porter, 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atour, B. (2010). 4장: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관하여. 브르노 라투르 외.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 사이언스**. 서울: 도서출판 이음, 95-124.
 [Latour, B. (2010). Ch.4: On actor-network theory. *Human-things-alliance: Actor-network theory and techno-science*. Seoul: Eum Press, 95-124.]
- Osmer, R. (2012).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과제**.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원저 2008 출판).
 [Osmer, R. (2012)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Translator: Kim, J. H. & Kim, H. A. Seoul: WPA.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08)]
- Osmer, R. and Schweitzer, F. (2003). *Religious education between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Grand Rapids: Eerdmans.
- "The Transhumanist Manifesto." 2020 v. 4. Humanity Plus. Retrieved September 5, 2024 from <https://www.humanityplus.org/the-transhumanist-manifesto>